

# “전통 수공예 기술 전수 체계화를”

▶ 전담,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 간담회

한옥마을 공예명인관 활용  
전주 전통의 맥 아카이브 구축 등  
무형문화재 장인들과 논의

전통 수공예 맥 잇기 교육 관련  
“전수자가 나올 때까지  
일회성 아닌 연속성 있게 진행돼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지난달 31일 전주지역 기능분야 무형문화재 장인과 함께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이 지난달 31일 전주지역 기능분야 무형문화재 장인과 함께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장 최은순, 색지장 김혜미, 악기장 최동식·최종순, 선자장 조종익, 방화선, 민속목조각장 김종연, 전통음식 김남임, 낙죽장 이신일, 우산장 윤규상, 한지발장 유배근 장인 등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세 가지다. 한옥마을 공예명인관 활용, 전통 수공예 맥 잇기 교육 및 체험, 전주 전통의 맥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전통 수공예 기술 전수교육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연속성 있는 교육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속목조각장 김종연 장인은 '전통 수공예 맥 잇기 교육과 체험사업'과 관련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생들이 그 다음은 무엇을 할지 몰라 한다. 교육이 연속성과 지속성이 없다"며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반, 심화반, 전문가반을 거쳐 전수자가 나올 때까지 연속성 있게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색지장 김혜미 장인은 "교육을 단기적으로

로 해서는 매년 초보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여러 과정을 거쳐야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 수준이 됐을 때 우리 장인들이 판매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초·중·고급 과정 이외 과정 신설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예품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선자장 조종익 장인은 "앞집, 옆집에서 다 파는 싸구려 저가 중국상품 팔다보면 차별성이 없다"며 "지역작가와 작품 중심으로, 또는 실명제로 운영하는 등 저가 상품들에 대한 대처와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인들의 작품들이 너무 고가라는 지적에 대해 민속목조각장 김종연 장인은 "우리 장인들이 고급화만 고집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며 공예품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인들의 지구노력을 주장하기도 했다.

명인관 운영과 관련해서 장인들은 본인의 작업장이 편한 분들은 본인 작업장을 우선 사용되 명인관 희망하는 장인들은 전담에 사용 요청을 한 뒤 추후 기준을 정해 선별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안을 정했다.

연간 2명씩 무형문화재 장인들을 조명해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인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서도 장인 대다수가 연장자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순으로 먼저 아카이브 구축을 진행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태수 원장은 "직접적인 공급자이자 수혜자인 우리지역 무형문화재 장인분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대화의 장이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된 무형문화재 장인분들의 소중한 고견들을 이후 정책들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창작발레극 '사랑을 춤을 타고, 춘향' 4일 정읍사에서

전북발레시어터(단장 김동우)는 창작발레극 '사랑을 춤을 타고, 춘향'을 4일 오후 5시 정읍사 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북도문화관광재단·정읍시가 함께하는 '전북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우리의 고전 '춘향전'을 발레와 접목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작품은 전래동화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 많은 이야기 거리가 되었던 춘향을 정읍사예술회관과 전북발레시어터가 협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아름다운 춘향과 몽룡의 사랑스러운 춤, 익살스러운 방자와 향단이,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무용수들과 군무진까지 포함된 발레극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의 총예술감독은 영광육, 총연출은 김동우가 맡았다.

공연 관계자는 "2012년 상주단체를 시작으로



정읍사예술회관과의 작업은 돈기호테, 호두까기 인형, 도로시의 모험과 이번 신작을 통틀어 4번째다. 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연은 전석 만원이며, 단체관람의 경우 50% 할인이 적용된다. /정해은 기자

# “우리 마을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완산동 마을술사 아가이부(衛可利簿)' 내일부터 사흘간  
투어참여 신청은 오늘까지 선착순 통해 10명 선발

전주 완산동 지역민들이 직접 마을의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완산동 마을술사 아가이부'가 3일부터 5일까지 전주완산초등학교(교장 임상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7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마을술사(마을이야기 해설사) 양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시명 '아가이부(衛可利簿, Archive)'는 영문 아카이브(Archive)를 한자로 음역한 신조어로 '마을의 가치 이로운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재단은 첫 사업대상지로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전주시 완산동을 선정하고, 주민 6명과 청년기획자 6명으로 구성된 12명의 시민위원을 위촉했다.

마을술사 시민위원은 전문가와 함께 한 달여간의 강좌개발과정을 거쳐 완산동의 숨은 명소 12곳과 이야기를 수집했다. 수집된 완산동의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 직접 마을을 해설 할 수 있는 현장답사코스인 초록고살길과 완산고살길 코스를 개발하고 '완산동 마을이야기 지도'를 제작



'완산동 마을술사 아가이부'가 3일부터 5일까지 전주완산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사진은 완산동 마을 이야기 지도.

했다.

'초록고살길'은 초록비위→꽃동산→삼나무→완산초등학교→기림당을 경유하며, '완산고살길' 코스는 완산교회→대장간과 골동품점→완산사→강담재→옛 선교사 사택→옛 빙고→다가공원으로 이어진다.

김창주 생활문화팀장은 "이번 전시회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차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 이루어지는 5일 오후 3시에는 마을술사 시민위원들의 해설로 '완산동 빌리지 투어'가 진행된다. 투어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 투어참여 신청은 2일까지며, 전화를 통해 1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정해은 기자

#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갤러리 슴, 4일까지 정소라 개인전

gallery 슴(대표 정소영)에서는 정소라 작가의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III'전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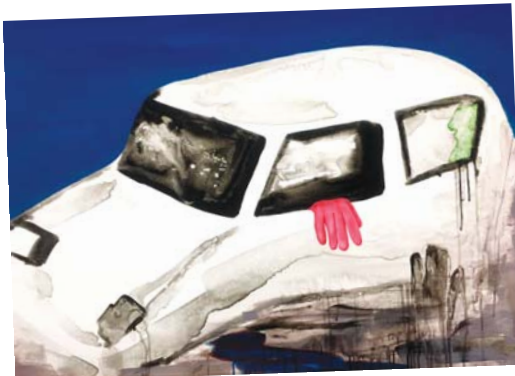
블랙유머를 시작화하는 작업을 펼쳐온 정소라 작가. 그간 교통사고와 입으로 쉽게 흘러 버리는 단어를 교묘하게 연결, 타인의 고통을 무심하게 관찰하고 소비하는 인간 심리를 연출해 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 전과는 또 다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반반으로 쪼개져 잠식되어가는 고가의 차량은 인간이 욕망하는 마음속에 부유함에 대한 빈곤한 처지에서 느껴지는 박탈감과 부를 쟁취 하였음에도 느껴지는 헛헛한 부유함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데페이즈망(낮익은 불쾌라도 그것이

놓여 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내져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이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게 되는 현기법)을 빌려 싱크대 위에 무심하게 걸려 있을 고무장갑을 사고차량 창문에 걸쳐 놔다.

그 이질적인 광경은 마치 소리 없이 격렬하게, 방금 생사를 달리던 누군가의 마지막 구원을 바라는 손을 연신하게 한다.

작가는 "그 동안 스냅 샷처럼 순간에 집중하던 번데기와 같은 모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관객과 자신에게 조금 더 깊고 진한 스스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작품 속 인생의



과도기를 숨김없이 드러낸 이번 전시회가 많은 이에게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10번째 개인전으로 오는 4일까지 진행하며, 총 10점의 작품과 소품을 전시한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